부산시, 中 시장개척·문화교류 활동 전개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필두
베이징 우호협력 도시 체결 10주년
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 계기

부산시는 4일부터 7일까지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시장개척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부산-베이징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과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8월 중국 상하이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지난 2013년 8월 중국 베이징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교류사업 재개를 위한 베이징·상하이시(市) 부시장 등 고위급 인사 면담 ▲베이징 현지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2023 상하이 조선전시회 부산지역 기업 참가 지원 ▲한중기업가 교류 만찬회 및 기념음악회 등이 있다.

부산시가 4일~7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시장 개척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을 전개한다. /부산시

먼저 5일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베이징 현지에서 베이징시 고위급 인사를 만나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계기 양 도시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자본 및 기업 부산 유치 등을 홍보했다. 이어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국 경제협력 행보를 계속했다.

6일 이 부시장은 상하이로 이동해 현지에서 상하이시 부시장과 면담하며 지난 1993년 체결한 자매도시 체결 협정을 발전시킬 경제·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면담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3 중국 상하이 조선전시회' 행사의 부산관을 방문해 부산지역 참가기업들을 격려하고, 대중국 조선시장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녁에는 '한중기업가 교류 만찬회 및 기념음악회'에도 참석해 양 도시 조선기자재 분야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상하이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 연주 공연도 마련돼 양 도시 자매결연 3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하고, 중국 현지에 수준 높은 부산의 교향악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베이징에 이어 7일 상하이에서도 중국 상장사 등 중국기업 70여 개 사를 대상으로 부산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중국 자본과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우리시는 이번 베이징, 상하이 방문을 계기로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국 교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전남도 일자리 투자유치국은 지난 1일까지 6일 간 투자유치 사절단을 캐나다 토론토와 윈저로 보내 자동차·철강 제조 분야 잠재 투자기업 발굴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전남도 사절단, 캐나다 방문해 자동차·철강·에너지 기업 유치

토론토·윈저 소재 기업 방문
전남 기업 북미 진출 방안 논의

전남도가 캐나다의 자동차·철강·에너지 산업 거점 지역인 토론토시와 윈저시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일자리 투자유치국은 지난 1일까지 6일 간 투자유치 사절단을 토론토와 윈저로 보내 자동차·철강 제조 분야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추진했다.

사절단은 전남의 역점산업과 연계한 북미시장 투자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역 강소기업인 ㈜유에너지, ㈜티이에프로 구성했다.

먼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소재한 기업을 방문해 북미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제도를 알아보고 향후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선 현지 자동차, 철강 제조 분야 핵심 기업의 전남 유치와 전남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사절단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소재한 기업도 방문했다. 이곳에선 조선·철강·이차전지 산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원자재 수급과 전문인력 확보, 투자 인센티브 등 전남도의 다양한 투자 지원을 소개했다. /순천(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착수

전략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토론회
3개 산업육성 방향·9개 전략산업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부산시는 지난 4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제6차(2024~2028) 전략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까지 5차에 걸쳐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제6차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과 정책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전략산업 육성계획 개편안을 도출했다.

개편안에는 3개의 산업육성 방향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9개 전략산업이 담겨 있다.

3개의 산업육성 방향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성장의 양대 축으로 상품·자본·사람의 집합과 연계·교류 강화(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 ▲주력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생산성의 제고(주력산업 고도화) ▲도시 인프라 강화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신산업육성 생태계 조성(미래신산업 육성) 이다.

3개 육성 방향에 따른 9대 전략산업은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해양산업 ▲금융산업 ▲문화관광산업이다. 주력산업고도화는 ▲미래모빌리티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라이프스타일산업이다. 미래신산업 육성은 ▲디지털테크산업 ▲에너지테크산업 ▲바이오헬스산업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진도군, 농촌진흥공모사업으로 54억 확보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등 선정

진도군이 2024년 농촌진흥공모사업에 선정돼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30억원 ▲꿀벌자원육성품종사업 24억원 등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고체유용미생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고체형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자동장비 체계 제작·설치부터 준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꿀벌자원육성품종 구축사업은 꿀벌 집단폐사와 질병 발생 빈도가 늘면서 흔들리는 농업생태계를 바로잡고 국내 육성 신품종 우수 꿀벌(원여왕벌)을 집중 증식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덕~포항 철도 중단… 대체 버스 운영

KTX 환승 위해 편도 6회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동해선 철도 영덕~포항 구간의 무궁화호 열차를 다음달 18일부터 약 1년간 운행을 중단키로 한 가운데 영덕군이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영덕~포항 간을 운행 중인 디젤동차(RDC)의 잔존수명평가 결과 안전상 연장 운행이 불가하다는 판단과 함께, 포항~삼척 간 전철화 사업 완료 시기가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로 연기되면서 영덕~포항 간 열차 운행을 올 12월 1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중단키로 하고 그 사실을 지난 10월 5일에 영덕군과 포항시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영덕군은 대책 마련을 위해 김희국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포항시 등과 협의한 결과 철도 연장 운행을 현실화하긴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대신 중단기간 동안 대체 수송 버스 2대를 영덕역~포항역 간 KTX 열차 시간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역에서 KTX와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편도 6회를 운행할 예정이며, 버스의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승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경유지를 조정키로 했다.

또한 철도공단 및 철도공사와 합의를 이끌어 버스 운영비 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용 요금을 기존 열차 운임과 같은 2,6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에 대한 보물 지정서를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 전달했다.

순천시

송광사 조계문 '보물' 지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조계문(順天 松廣寺 曹溪門)'에 대한 보물 지정서를 소유자(관리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송광사 조계문은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인 일주문으로, 사찰과 공간 구분을 하는 일주문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 문화재청을 통해 역사·학술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순천(전남)=정정신 기자 spirit@

장성군

영화 관계자 대상 '팸 투어'

장성군이 최근 영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했다. 팸 투어는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초청 관광 행사다.

이번 팸 투어에는 영화 '더 킬러'를 연출한 최재훈 감독과 '걷기 좋은 날'의 박용주 감독 등 영화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관계자들은 첫날 황룡강, 홍길동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 등 명소를 방문했다. 이튿날에는 천년고찰 백양사를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성(전남)=양수녕 기자

하동군

도시숲·녹지공간 조성 '최우수'

하동군은 2023년 경남도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군 평가에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그린경남 조성 실적으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군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으로 탄소저감, 생활 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의령군

95세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원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95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100세에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0여 군데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지난 10월 통계청 자료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의령군이 전국에서 8번째, 경남에서 첫 번째로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